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 도입...모바일로 입영통지

일반공공행정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 3배까지 배상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서도 조정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 서민 유통

▲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 = 지금까지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때 생체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올해 2만명에서 내년 8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확대 = 콘텐츠 분야 창업육성 지원 예산이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1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 사업은 3년 이하 창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이 이뤄진다.

▲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조사 권고 =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설 =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천억원이 신설된다.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올해 500명에서 내년 2천명으로 확대한다. 점포철거 지원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인천·경기도에 설치돼 분쟁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도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제한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경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내년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되고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된다. 또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선별포장업체(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농·축산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공급 대상은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로,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공공하는 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걸쳐 120가구를 조성한다. 공동육아 나눔 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물론, 기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 강화 =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과 등 노지 채소 5개가 추가돼 대상 품목이 57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내년 부터 보험료의 최대 70%를 국고로 지원해준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3km 내 살처분 = 닭·오리 등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반경 3km 이내 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만 살처분했지만, AI의 발생·확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 범위를 강화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농식품부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선별포장업체(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이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 판매업 등록을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협)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용 가운데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부생연료유 2호는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고 난방능력이 뛰어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동력 예취기 면세유 연간 공급량은 52.5 l에서 75.0 l로 늘어난다.

▲ 농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과 귀촌 희망자 등에게 농촌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한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창업 교육·컨설팅·금융지원과도 연계된다.

환경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2019년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지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솔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국방·병무

▲ 피복류 보급 개선 = 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사 보수체계의 통일해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징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복급·수당도 미지급 된다.

▲ 모바일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발송 = 모바일 앱으로도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톡링크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대학원

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1월 입영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인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시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용(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15면에 계속>

2019 새해 달라지는 것들

환경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외의 모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안전·질서

- 맹견 소유자 교육 이수 의무화
 -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 1년에 3시간 받아야 함. 위반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또한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 부과

국방

-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사 보수체계의 통일해 월 63만원(유형 기준 182~245만원) 인상,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

일반공공행정

- 하차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차량으로 대체 하차는 3회, 일반 하차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 가능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농·축산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3km 내 살처분(기존 반경 500m)

보건·사회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20% 정도로 축소
 -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해도 10만원 인상, 본인예정일 이후 1년까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 가능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항문 등), 비뇨기(신장·방광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총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대상 포함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커피를 마시면
사랑이 시작된다!

채널A 주말특별기획

커피야, 부탁해

윤준형 김민영 채서진 이태리 길은혜 김남에 류해린 맹세향 한재우 이태문 이갑선 장극수 김동준 우정민 윤소이 김명 | **극본 서보라 이아연 연출 박수철**

매주 토·일 저녁 7시 40분